

뉴스 & 뉴스

일산 노인복지관 개관

연꽃마을이 지난 2월 고양시로부터 수탁했던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20일 오전 11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작품 전시회와 노인용품 전시관 개관식도 함께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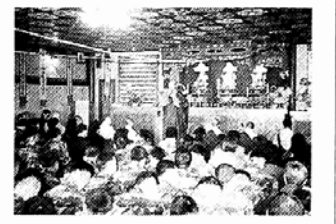
연건평 1500평의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관으로는 국내 최대규모로 상담사업, 기능회복사업, 평생사회교육사업, 주간보호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 또 장애인서비스와 결혼식, 돌잔치, 회갑잔치 등을 유치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방침이어서 지역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우회 소적새마을을 위문

군법당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심우회가 29일 소적새마을에 자원봉사 활동 및 대중공양에 나선다. 이날 심우회는 소적새마을에 부처님 오신날 봉축도 달아줄 계획이다.

한편 심우회에서는 군법당에 연동달아주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연동달기 후원 동참자들을 모집한다. 김지연 기자

호국정토사 법당 낙성



육군 3653부대 호국정토사(주지법사 김경림) 법당 낙성법회가 7일 봉행됐다.

삼존불을 모시는 점안식에 이어 거행된 낙성법회에서 영도스님(심원사 주지)은 "불자장병들은 성심으로 정심무장을 해 입가에 항상 미소가 그려지고 용기와 신념, 정의감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호국정토사 법당은 8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대지 500평에 건평 36평 규모로 지어졌다. 법당 옆으로 4평 규모의 군중병실도 갖추었다. 이날 법회에서는 군장병 수계식과 포교사단의 감사대 수여식도 거행됐다. 김지연 기자

아침을 여는 집 '백서' 발간

경북편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훈)은 실직자 구호와 자활모임터인 '아침을 여는 집 99년도 사업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사랑의 집수리, 경로잔치, 실상사 귀농전문학교 입소교육, 나눔의 장, 사회기술훈련 '바꿔살기', 일꾼포럼, 소외된 사람들의 작은 음악회 등 사업내용 소개와 평가의 글, 입소자의 글 등을 게재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장애인 포교활동화를 위해서는 복지시설과 전문인력을 늘리고 사찰들도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지적장애인들의 법회장면.

이혜숙 종교사회복지연구소장은 "아무래도 복지시설을 많이 늘리고 특수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고, 제천장애인복지관 최성국

부장은 "사찰들도 경사로, 좌변기, 유도블록, 점자 안내문이나 음성안내문,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교계 복지단체 '장애인의 날' 행사

음악회·무료진료·산행대회등 풍성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계 복지단체들이 장애인 나눔터를 비롯하여 음악회, 무료진료, 급류타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은 20일 영월군 수리래프팅에서 지역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급류타기 일일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0392)635-0758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산)은 22일 오후 1시부터 인근지역 장애인 및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관 내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이날 무료진료에는 순천향대학병원 의료봉사단이 내과, 정형외과, 안과 등의 진료봉사에 나선다. (02)989-4215. 제천장애인복지관(관장 진호)도 22일 오후 3시 제천시 문화회관에서 합창, 사물놀이, 댄스, 수화노래 등을 내용으로 한 "아름다운 음악회"를 개최한다. (0443)852-0900

더덕유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남)은 19일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민속촌 야유회를 떠난다. (032)325-2161

북아원 주간보호센터와 순회재활센터도 각각 행사를 개최한다. 주간보호센터는 19일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양평 동구를 답사할. 순회재활센터는 28일 포천에서 온천욕 나들이 행사를 갖는다. (02)922-2951. 대평장애인복지회

한명우 기자

'지리산댐 대책위' 구성키로

실상사 사부대중좌담회 실상사(주지 도법)는 9일 화림회 등 사중스님 20명과 귀농학교, 대안학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종무소 직원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사부대중 좌담회를 개최하고, '실상사 지리산댐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중심으로 '실상사 지리산댐대책위'를 구성한 후 교계 재단체와 함께 '지리산댐 불교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사찰 장애인 보호시설 '열악'

법당 문턱 높고...계단 많고...화장실 불편

불자장애인 급감...복지시설 타종교 비해 열세

소적새마을 특수교실 주임교사인 홍성철씨(42·지체장애 3급)는 절에 가본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조차 없다. 몇 번 가보았지만 계단이 많고 법당 문턱이 높아 불편을 겪은 느낌이 남아있을 뿐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인 고관철씨(34·지체장애 4급)는 "사찰엔 가보이면 솔직히 말해 장애인들은 오지 말란 얘기가 다들 있을 정도"라고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말한다. 고씨는 "장애인을 위한 좌변기 하나 변변치 않게 설치되어 있는 사찰이 있느냐"며 "불교복지를 공부하는 학도로서 장애인에 대한 불교계의 무관심에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각장애인 박운화씨(60)는 "가끔 혼자서 밖을 나가지만 그

래도 사찰엔 갈 엄두가 안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조차 설치된 곳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없이는 참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들은 한결같이 "맘 놓고 사찰을 참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찰들은 묵묵부답일 뿐이다. 근래 들어 관심이 다소 높아지면서 이러한 행사는 꽤 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교계의 장애인 복지들은 말 그대로 '불모지'로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복지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같은 현실은 통계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통계청이 지난 95년 실시한 인구센서스에서 나타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이들 중 무교를 제외한 28.1%가 불교인이었고, 기독교 21.2%, 천주교 7.9% 순이

었다. 그러나 97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전국 46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독교가 36.4%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 22.7%, 불교 18.2%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불자장애인 수가 10%내외로 더욱 줄어들었다"는 것"이라는 교계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불자 장애인 수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불교 장애인복지에서 가장 전 문가로 꼽히는 강북장애인복지관 조석영 부장은 "노인이나 일반복지 쪽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장애인 복지까지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일년에 한 두차례의 의례적인 행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종단차원의 장애인복지 운영 위원회 설치와 함께 장애가 '업'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부터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불교계 장애인 복지시설은 서울강북·제천장애인복지관

강원 산불...연등사 불 타

7일에 이어 12일에도 강원도 삼척, 동해 등지에서 대형산불이 잇달아 발생, 도내 각 가람수호회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산불도 강릉시 연곡면 동력리 소재 연등사(주지법사 고유익) 법당(60평)·요사채(20평)가 완전 소실돼 약 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한 인근에 위치해 있는 삼척 연등사 통해 삼화사·김추사등 20여 진동사찰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전 동해시 남서쪽 달방담 하류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후 용정동 감추사 입구까지 번지자 소방차와 군인들이 출동해 단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감추사는 한 때 사찰 100여m 지점까지 불길 이 번져 긴장감이 감돌았다. 큰 불길 이 잡힌 13일 오후에도 뒷산에 불 씨가 남아 사찰 관계자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후에는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로 번져 남단에 위치한 천려사 입구

까지 번졌다. 불길 이 절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소방차 3대와 군인 50여 명이 출동해 불길을 막았다. 이밖에 천은사, 영은사, 약수암, 삼화사 등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위치한 각 사찰에는 소방차와 산림청 직원, 군인들이 출동해 불길 이 경내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한편 속초 신홍사(주지 법장)는 고성지역 산불피해 지역에 밤비 50세트와 의류 200벌을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개신교인이 관세음보살상 보시

강릉시 성산면에 사는 개신교 신도인 최병호(47·자동차정비소 운영)·홍영희(37, 개신교 집사) 씨 부부가 성산면 오봉리에 소재한 원웅종 다보사(주지 보현)에 호박으로 조성한 1000만원 상당의 관세음보살상(사진)을 보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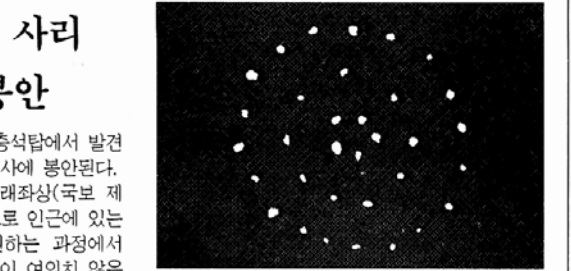
이들은 보현 스님이 아무 대가 없이 신도들의 병을 간호해 주고 정성껏 신도들을 대한다는 소식을 평소 전해 듣고 거금을 보시했다. 스님이 신도들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면서도 묵묵히 정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이들은 앞으로 500만원을 더 보시할 생각이다. 전유진 강릉지사장

용암사지서 나온 사리 영암 도갑사에 봉안

전남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 32과가 인근 사찰인 도갑사에 봉안된다.

이 사리는 96년 월출산 마애여래좌상(국보 제 114호)의 주변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인근에 있는 용암사지 삼층석탑을 수리·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문화재청은 '보존이 여의치 않은 발굴문화재는 다시 매장한다'는 관례에 따라 사리를 석탑에 다시 봉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골·훼손 등이 우려돼 수년동안 수장고에 보관해 오다가, 최근 사리의 봉안 장소를 조계종에 의뢰했다.

이 같은 결정은 '사리는 문화재라기보다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문화재청의 판단에 따른 것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암사지 사리.

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용암사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도선(827~898) 스님이 창건한 도갑사에 14일 사리이문식을 봉행했다. 한편 도갑사는 사리전경법회를 마련하고, 사리탑을 조성해 봉안할 계획이다. 사리전경법회의 일정은 추후 공고된다. 오종욱 기자

Advertisement for 'Dalma-do Sungeum Card' (달마도 순금카드).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card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such as 99.9% success rate in resolving disputes. The card is associated with the Dalma-do Buddhist temple and its founder, Master Dalma.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Goldsale.co.kr.

Advertisement for 'Palgae Mandala' (팔괘 만다라). It describes the 'Palgae Mandala' as a powerful talisman for health and wealth, based on the Bagua (Eight Trigrams) concept. The ad includes a list of items included in the package, such as a book and a mandala,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Seonjiwan (성지관음회).